

# 2019년 제7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 결과

## □ 세미나 개요

○ (주제)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체계 개선과 기술정보 활용

- 사회 : 김형국 과장(국가기록원)
- 발표 : 김현진 연구사(국가기록원)
- 토론 : 박지영 교수(한성대), 현문수 교수(부산대), 소준철 연구원  
((준)도시상공업연구자네트워크)

○ (일시/장소) '19. 8. 23.(금) 13:30~16:00 / 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참석) 총 100명

- (내부) 원장, 기록정책부장, 연구협력과장, 관련 담당자 및 관심 직원 21명
- (외부) 토론자, 기록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 등 79명

※ 공공기관(19명), 교육청(16명), 중앙행정(16명), 지방행정(10명), 군기관(5명), 대학기관(4명), 연구기록물관리기관(3명), 일반(6명), 대학교 4명 / 기타 2명

## □ 주요 논의 내용

○ ICA의 기록물 기술표준 및 국가기록원의 정리·기술 체계 현황

○ 다중개체 기술을 위한 참조 모델 분석 및 적용 방안

○ 기록의 지적 통제와 이용자 경험 설계의 필요성, 테스트베드 구축과 공개, 다중체계 기반의 정리 및 기술 체계 적용의 기본 방향, 생산기관의 변천 및 기능 정보 작성 여부, 콘텐츠와 정리기술의 연계 활용 방안, 도구기록물 메타데이터 접속 및 열람의 편의성 제공 등

## □ 향후 계획

○ 제3차 기록관리 정책포럼(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19. 9. 18.

※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 (박지영 교수) ① ICA의 ISDA(G) 및 ISAAFR(CPF) 기준의 기술은 어느 정도 초반 기반이 잡혀있고, 그것들을 수행해 본 경험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있는 반면, 기능은 분석이나 관련 자료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준화시키고 기존의 다른 기술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음. 기능시소러스 지침을 가지고 기능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함.

② 다중개체 기반 기술체계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혹은 사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많이 필요하고, 한 번 만들어 놓고 나서 공개 하고 사용 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함. 단일개체를 다중개체로 꼭 풀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중개체는 필요에 따라 원하는 개체 몇 가지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단일개체를 쓰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개체를 많이 해놓는 것은 기관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라는 의미도 있음.

=> (김현진 연구사) 테스트베드 구축과 공개,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이 중요하다고 점은 전적으로 공감함. 호주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스템의 내부 구조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가면 좋을 것 같음.

③ 기록의 지적인 통제라는 것이 기록을 생산하지 않고 이관 받아 정리 하고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기록을 생산하는 것임. 정리기술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기능을 기술하고 기능어를 넣는다는 것 자체는 다른 기록에 덧붙여서 중개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크리에이터(Creator)임. 때문에 지식(Science)뿐만 아니라 경험에 의한 숙련도(Art)가 반드시 필요함. 나아가 기록물의 지적구조를 공간(Archival Universe)에 넣어 그 안에서 이용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과정별로 모델링하는 이용자 경험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봄.

=> (김현진 연구사) 이용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한 구조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이용자 행로 및 로그 분석 등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음.

○ (현문수 교수) ① 생산기관 중심의 기록물군 체계의 정리방식이라고 하지만 실행방식을 보면 기록물군 체계 하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현재는 충분히 보지 못하는 상황임. 오히려 기록의 출처에 대한 맥락을 군 기술에서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관에 대한 맥락을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지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음. 군 중심으로 기록을 기술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기록의 검색이나 이해를 도와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② 특히 외부로 통행되고 있는 검색도구에서 드러나는 정리체계는 군·계열 모두 철/건 목록으로 이용자들에게 기본 검색도구가 철/건 목록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게 됨. 일단 철/건으로 입수가 되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군 기술을 하고 계열 기술을 하면서 묶어주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작업이지만, 이러한 형태가 과연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도구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금의 작업들이 매우 반갑게 느껴졌음.

=> (김현진 연구사) 군과 계열이 각각 철/건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군에서 계열로 내려가고 계열에서 군으로 가는 기술계층 구조는 일단 가지고 있음. 뒤에 제공되는 목록이 군에서도 전체 목록이 보이고, 계열에서도 계열 단위에서의 전체 목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군과 계열 간의 기술계층은 바로 건너뛰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③ 기록물군에 기관의 행정연혁을 작성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조직에서 혹은 그 업무기능에서 생산되는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것임. 현재 웹에 공개되어 있는 검색도구를 통해서 제공되는 행정연혁은 단순한 연혁정보 수준으로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배경정보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④ 기관정보를 연계해주고는 있지만 연계가 모호하고, 기관정보 수준에서도 최상위의 기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이 일부 연계는 되어 있지만 그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그런 점에서 다중개체 기반으로 기술체계를 적용해보겠다는 기본 방향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특히, 기능시소러스 및 기관

전거의 구축 강화 방향은 매우 반가운 소식임. 더군다나 정부의 업무들이 BRM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에서 BRM 체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관정보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대한 정보들을 빨리 수집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계층화해서 기록을 집합화하는 데에 혹은 정리기술 하는 데에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⑤ 기능시소러스 계층을 보완해서 정리기술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전거 업무기능 항목을 충실하게 기술하면서 기술정보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음. 다만 이것을 통해서 생기는 결과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있지 않고서는 또 다시 기관정보, 기능정보, 기록정보가 자체적으로 매몰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됨. 그러므로 해외 사례나 표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 가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음.

=> (김현진 연구사) 계층구조나 BRM에 있는 계층별 용어 통제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좀 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함. 호주의 경우 기능시소러스를 이야기 할 때 기능어를 주제어라는 큰 범주에 넣고 기능과 활동까지를 기능어로 쓰지만 그 하위에는 기록물의 유형, 주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시소러스를 구성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음. 이의 실효성 내지 효율성 등을 논의해 보았으면 함.

⑥ 정리체계의 선정 및 기술의 방향과 관련해서 기록물군 중심의 정리 체계가 유지된다면 BRM 체계 하에서 생산된 기록에 대한 정보와 기관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혼합된 형태의 기록물군이 조직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것을 버리고 시리즈 혹은 계열 수준에서만 정리할 것인지 궁금함. 미국의 경우도 최근 검색도구의 형태를 바꾸면서 군 기술에서는 실제적인 기록물에 대한 정보는 이 군에 소속된 시리즈로 연계해주면서 시리즈 안에서 시리즈를 생산한 여러 가지 생산기관 이력정보, 업무기능에 대한 정보만 주고 있음. 호주의 CRS 시스템도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군 기술이 중간지점 역할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미국의 예는 검토해 볼만함.

=> (김현진 연구사) ① 기록물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생산기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보고 싶은 사람은 그런 정보를, 특정한 업무기능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통시적인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단계에서의 기본방향임.

② 기능시소러스를 통한 계열 정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춘다면 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균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최소화하고 상세한 내용은 계열에 넣고 기관정보를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고민 중에 있음. 제시해 주신 NARA의 구조는 참고할 만함.

⑦ 기관정보도 중요하지만 생산환경이 이미 기능에 기반해서 기록물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정보, 기능분류표 체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생산맥락을 아카이브 단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임. 그런 점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BRM 기능분류체계와 국가기록원이 구축하게 되는 기능시소러스에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임. 국가기록원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생산기관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으로 많은 참여와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음.

=> (김현진 연구사) 기능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기능기술까지 생각한다면 생산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 만약에 기능기술을 한다고 하면 기록관리지원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생산기관 업무기능이 어떻게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그것들을 관련 있는 여러 부서가 함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향에서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소준철 연구원) ① 기록물군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에 연계된 기술요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도구이며, 국가기록원의 기본적인 정리 방식은 컬렉션과 검색 두 가지가 있음. 컬렉션의 경우 책으로 봤을 때 고문헌이나 오래된 문학 해제 하는 방식이 웹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기록물의 원문이나 생산맥락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난감한 부분이 있음. 기록물 소개에서 기록물 분류를 하고 있지만 컬렉션 단위에서는 기록물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김현진 연구사) ① 기존의 국가기록원 콘텐츠는 군 계열 기술서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단독으로 구축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콘텐츠의 맥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라든가 기술서와의 연계, 관련 기록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담아내고 있음. 정리기술을 기록물기술서와 전거와 기능시소러스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들을 기술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있음.

② 콘텐츠에 제시되어 있는 기록물의 첩/건 목록이 첩/건 정보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조할 수 있는 경로들을 추적해서 통합검색에서 연계가 되어있는 정도로는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

② 한국전쟁 관련 기록은 국방부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변천정보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한국적 특수한 상황으로 사회적 맥락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 기술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시리즈 단계에서 기술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더욱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생산문서는 어떤 정책적 상황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지 국을 기반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임. 따라서 단순한 연혁정보가 아니라 변천정보 혹은 기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순히 리서치 가이드를 떠나서 기록물을 묶은 상태에서 첫 번째 조망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그런 것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User도 혼란스럽고 기록을 관리하기 힘들 것임.

③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 자체를 정렬해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을 탐색하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임.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기술 규칙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고문헌 해제집에 불과할 것임. 기록물 자체에 관한 행정적 맥락을 볼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전거레코드가 따로 제공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정리기술뿐만 아니라 검색도구, 제공되는 데이터 역시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임.

④ 기능의 계층문제로 시리즈 계층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템 단계에서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는 듯함. 행정문서를 단순히 물리적인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기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맥락들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 그것을 통해서 기록물의 컴포넌트와 아이템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박지영 교수) ① 정보나 기록, 지식을 조직하는 것이 사이언스(Science)나 아트(Art)나 라는 것은 해묵은 논쟁임. 선형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고 과학 실험처럼 체계기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한 쪽의 주장인 반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정렬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 기관마다 매 상황마다 똑같은 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아트로 숙련도(Craft)의 개념임. 많이 오래한 사람이 더 정교하고 잘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임.

② 기록관리 하는 분들이 보는 시스템은 실제로 이용자의 화면과는 다르고 정리기술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경험을 설계하려면 실제 이용자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만 이용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관리자와 이용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 모두 필요하다고 봄.

③ 모든 기록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우선 보여 주는 추천 기능으로 콘텐츠나 전시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포괄적인 기술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선별되어야 함. 포괄적인 선별로 갔다면 반대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기존의 추천 콘텐츠 말고 다른 더 많은 콘텐츠, 기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데 반대는 잘 안 되는 것임. 선별적으로 몇 개만 본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님. 한정된 자원, 시간에서 하다 보니 보여주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현문수 교수) ① 17쪽의 표는 기록분류체계와 기능시소러스의 액티비티(Activt) 밑에 트랜잭션(Transatyon)의 계층을 주기보다는 기록 중심의 토픽(Topic), 서브토픽(Subtopic) 유형으로 기록을 집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생산기관들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능시소러스에 계층 용어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일부 영역에서는 BRM 체계 하에서 단위과제를 생산한다거나 단위과제카드를 만드는 과정에 기록이 묶이는 유형을 구현해서 설계하자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는 기록 중심의 BRM 체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고, 현재 생산기관에서는 기록을 집합화하는 기준이 기록이 아니라 업무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BRM은 그러면 기능시소러스에 활용하면서 또 다른 하위계층으로 주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렬 형태로 주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약간 혼돈이 있음.

② 생산기관에서 기록집합의 제1 기준으로 BRM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지금 있는 기록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입수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관과는 또 다른 축으로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정리기술의 기준 혹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이해기준의 틀에서 BRM은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높은 지위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임.

=> (김현진 연구사) BRM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관되었거나 이관될 기록물 대상으로는 BRM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대다수가 그 이전의 분류체계에 의해 생산된 것들로 BRM의 계층구조를 최대한 기준으로 삼고 앞의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

○ (소준철 연구원) ① 14쪽의 <붙임 2> 재정경제 영역 기능분류 시안에서 기능 분류로만 본다면 조세재정과 조세심판은 분리될 것이지만 주제어로 볼 경우 조세로 묶일 수 있을 것임. BRM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분류에서 정책심판으로 업무기능이 나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어떤 때에는 기관을 설명 못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혹은 굳이 조세로 표현해도 되는 것을 기능분류를 맞추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것임. 계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② 콘텐츠를 만들기 이전에 정리기술된 자료들이 어느 정도 명확히 존재해야 함. 리서치 가이드 만들 때 전거레코드가 연혁밖에 없던 상태에서

문서를 분류할 수 없었던 점이 큰 문제였음. RMS 단계에서 정리되어 있는 기능들을 정리했지만 사실 이것들을 서술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이 거의 없었음. 그래서 서울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세업무의 경우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임. 그렇지 않다면 전거레코드도 없고 정확한 정리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 (김근태 대구시청) BRM과 정리기술 체계를 연계한다고 하지만 BRM이 규칙성 있게 유지가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BRM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오늘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 차원에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함. 아울러 현재의 정리기술 체계가 역사적 업무 체계는 아니므로 분류체계는 생산의 출처주의와 관련해서 기관의 관리 영역까지 좀 더 세밀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① 난맥상을 겪고 있는 정리기술 업무는 As-Is 분석을 좀 더 치열하게 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억1천만여 건 소장기록물 가운데 2006년부터 도입된 BRM을 적용해서 생산 이관된 기록은 2~3년치에 불과하고 주요 대상은 BRM 적용 이전의 기록물로 소장기록물 전체를 BRM 체계에 맞추는 작업은 비효율적임.  
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기록을 공화국 단위로 크게 시대 구분해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현재 BRM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에 대한 고민은 지원기준과에서 하고 있으므로 공개서비스과 정리기술팀은 사이언스 측면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용자 활용의 수요도 있고 변천이 어느 정도 종료된 총독부 혹은 제1~3공화국 까지의 덩어리 하나를 놓고 그 안에서의 변천되는 구조와 가장 긴 시간동안 활용되었던 조직구조 하나를 참조모델로 해서 전후로 변형되었던 내용들을 연계해주는 정보로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기술을 해서 끊어 가는 방식이 어떨까 함.  
③ 오늘의 세미나가 큰 전기(轉機)라고 생각하고 많이 참석해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실무자들에게 큰 응원이 될 것으로 생각됨. 올해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공유하면서 정리기술 분야에도 서울기록원 사례를 시작으로 Art로서의 진도도 내지 않을까 희망해 봄.

**붙임 2**

**2019년 제7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모습**

